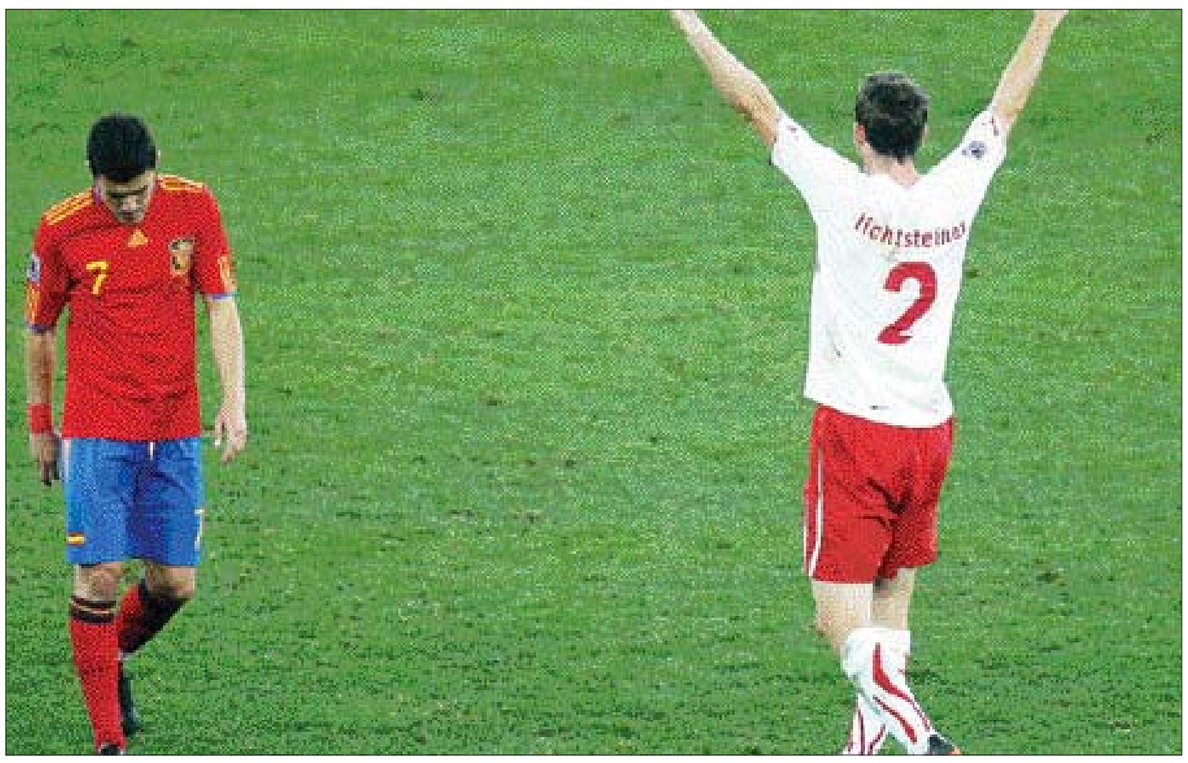
‘알프스 전사’ 빗장에 ‘무적 함대’ 침몰 이변

스페인, 스위스에 0-1패
A매치 12연승 마침표
상대전적 무패 기록도 깨져



승자와 패자 스위스가 지난 16일 밤 열린 2010 남아공월드컵 H조 1차전에서 우승 후보 스페인을 꺾는 최대 이변을 일으켰다. 경기가 끝나는 순간 스위스 수비수 스테판이 두 손을 번쩍 들어 기뻐하고, 스페인 주전 다비드 비야는 고개를 떨구고 아쉬워하는 등 희비가 교차했다. /연합뉴스

스위스가 2010 남아공월드컵축구대회에서 무적함대 스페인을 꺾는 최대 이변을 일으켰다.

스위스는 지난 16일(이하 한국시각) 더반의 모저스 마비다 경기장에서 열린 조별리그 H조 1차전에서 제대로 된 공격 한번 펼치지 못하다 후반 7분 문전 혼전 속에 젤송 페르난드스(생테티엔)가 차넣은 결승골로 스페인을 1-0으로 물리쳤다.

스위스는 스페인을 비롯해 칠레·온두라스 등 만만치 않은 상대들이 포진한 H조에서 소중한 승점 3을 챙기며 16강 진출에 청신호를 켰다. 스위스는 스페인과 상대 전적에서 이전까지 3무15패로 절대 열세를 보였고 스페인은 유럽 지역예선에서 10전 전승을 포함해 12연승을 달렸던 H조 최강의 팀이었다.

2006년 독일월드컵 때부터 4경기 연속 무실점 기록을 이어오는 탄탄한 방패를 자랑하는 스위스는 전반부터 철저히 잠그는 수비축구로 일관했다. 이날 볼 점유율에서도 37-63으로 열세를 면치 못했지만 큰 의미가 없었다.

전반전에 볼도 제대로 잡아보지 못했던 스위스는 후반 들어 서서히 공격의 강도를 높여갔다. 후반 7분 미드필드에서 블레즈 은쿠포(트벤테)가 페널티지역으로 한번에 넘겨준 볼을 에렌 디르디요크(레버쿠젠)가 받아 문전으로 치고 들어갔지만 스페인 골키퍼 이케르 카시야스(레알 마드리드)가 막아내는 듯 했다.

하지만 볼은 뒤따라 들어오던 페르난드스 쪽으로 흘러갔다. 페르난드스가 찬 볼을 스페인 수비수 헤라르드 피케(바르셀로나)가 필사적으로 막았지만 다시 흘러나온 볼을 페르난데스가 골로 마무리했다.

스페인 선수들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고 마음먹은대로 만회골은 터지지 않았다. 후반 18분 스페인의 안드레스 이니에스타(바르셀로나)가 아크 왼쪽에서 찬 볼이 골문을 외면했고 7분 뒤 사비 알론소(레알 마드리드)가 때린 대포알 슛은 크로스바를 맞고 나오는 등 골운도 따르지 않았다.

스페인은 전반 24분에도 공격에 가담한 피케가 페널티지역에서 스위스 골키퍼 디에고 베날리오(볼프스부르크)와 1대1로 맞선 상황에서 득점하지 못한 것도 뼈아팠다. 스페인은 28개의 슈팅을 날렸지만 골로 연결시키지 못했고 스위스는 8개의 슈팅 중에 1개를 결승골로 만들었다. 최강의 멤버로 이번 대회 우승컵을 노리던 스페인은 생각지도 않았던 스위스에 일격을 당하며 남은 조별리그에서 큰 부담을 안게 됐다.

스페인은 22일 온두라스와, 스위스는 21일 칠레와 각각 2차전을 치른다. /연합뉴스

브라질전 앞둔 코트디부아르
“북한 수비를 배우자”

오는 21일 새벽 3시30분 브라질과 2010 남아공 월드컵 G조 2차 예선을 앞둔 코트디부아르의 공격수 살로몽 칼루(첼시)가 북한 수비에 큰 감명을 받았다.

칼루는 17일 AFP 통신과 인터뷰에서 코트디부아르는 북한의 압박수비를 벤치마킹해서 브라질과 경기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한은 16일 브라질과 조별 예선 1차전에서 후반 체력이 고갈되면서 1-2로 패했지만 전반에는 강력한 압박수비로 브라질 선수들의 현란한 개인기를 완벽하게 차단했다. /연합뉴스

“1라운드 최고 거미손은 北 리명국”

유효슈팅 8개 막아내 …박주영은 유효슈팅 부문 3위

남아프리카공화국 월드컵축구대회 조별리그 1라운드가 끝난 가운데 가장 많은 선방을 기록한 골키퍼는 북한의 리명국(24·평양시체육단)인 것으로 집계됐다.

리명국은 지난 16일 브라질과 1차전에서 두 골을 내줬지만 8차례 상대 유효 슈팅을 막아내 이 부문 1위에 올랐다. 패스 성공률에서는 9명이 100%를 기록한 가운데 티에리 앙리(프랑스)가 8차례 패스를 모두 성공했다.

득점 부문에서는 디에고 포를란(우루과이)이 유일하게 두 골을 넣었고 유효 슈팅은 포를란과 리오넬 메시(아르헨티나)가 4개씩으로 가장 많았다. 박주영(25.AS 모나코)이 유효슈팅 3개로 미로슬라프 클로제(독일) 등과 함께 공동 3위다.

한편 외국의 주요 축구관련 매체들은 32개 나라가 1경기 이상 치른 17일까지 활약상을 정리해 가장 인상적이었던 선수나 팀을 선정했다. 골닷컴은 나이지리아의 골키퍼 빈센트 에니에아마를 지난주 최우수선수로 꼽으며 독일의 메수트 외질, 가나의 아사모아 기안에게도 좋은 점수를 줬다.

스카이스포츠는 외질이 1차전에서 가장 좋은 활약을 펼쳤다고 평가했고 최고의 경기로는 멕시코와 남아공의 개막전, 최고의 팀은 스위스, 가장 멋진 골은 시피웨 차발랄라(남아공)의 대회 1호 골을 꼽았다. /연합뉴스

〈이혜원씨〉 〈민수지씨〉 〈이연두씨〉 〈임미정씨〉

한국 ‘왁스’들도 화끈

얼짱·몸짱에 내조·응원·홍보까지

월드컵 국가대표를 옆에서 지키는 열두 번 째 선수가 눈길을 끈다. 아름다운 몸매로 월드컵 패션을 선도하는 WAGs(Wives and Girlfriends)가 그들. 한국판 왁스의 선두그룹엔 미스코리아 출신인 안정환의 아내 이혜원, 이동국의 아내 이수진, 정성룡의 아내 임미정씨 등 3명이 포진해 있다.

패션 쇼핑몰 CEO로 바쁜 하루를 보내는 이혜원 씨는 왁스의 선두주자. 2002년 한일월드컵에서 안정환의 ’반지키스’로 팬들의 주목을 받은 그녀는 미니홈피를 통해 홍보에 열심이다. 남편이 아이들과 화상 전화통화를 하는 사이의 초음파 사진을 차례로 공개하며 온라인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미니홈피 하루 방문자 수는 1만여명을 훌쩍 넘긴다.

이수진 씨는 남편 이동국보다 태극전사들을 먼저 챙겨 팬들 사이에서는 ‘대인배 왁스’로 통한다. 최종 엔트리 발표 당시 ‘모두가 자랑스러운 태극전사’라는 응원 글로 화제를 모았다.

김남일의 아내 김보민은 아나운서라는 직업을 앞세워 방송과 각종 인터뷰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김정우의 여자친구인 연기자 이연두 도 월드컵 응원가로 연인에게 힘을 북돋고 있다.

안정환 아내 이혜원 **미니홈피에 일상공개…홍보 으뜸**

이동국 아내 이수진 **남편보다 팬들 챙겨 ‘대인배 왁스’**

김정우 여친 이연두 **월드컵 응원가로 연인 힘 북돋워**

정성룡 아내 임미정 **만삭·뱃속 아이 초음파 사진 공개**

진 등 그라운드 밖 ‘자상한 아빠’의 모습을 소개했고 태극전사들의 선전을 바라는 패션화보 모델로 나서 얼짱 · 몸짱을 뽐냈다.

이혜원 씨는 16일 미니홈피에 ‘배고파서 축구를 했다던 당신이 우리 아이들은 배고프지 않게 하겠다는 그 말, 내가 조금만 잘 먹어 5cm만 더 컸어도 더 잘 할 수 있었을 거란 말 하지마요’라는 글을 남겨 가슴 뭉클한 감동을 안겨줬다. 지친 남편의 체력관리를 위해 무기질과 식이섬유 등 식물영양소가 풍부한 특별식을 준비, 남아공에 공수했다.

이혜원씨가 베테랑 왁스라면 임미정·이수진씨는 남아공 월드컵에서 새롭게 부상한 차세대 왁스다.

임미정씨는 만삭의 사진과 뱃속 아이의 초음파 사진을 차례로 공개하며 온라인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미니홈피 하루 방문자 수는 1만여명을 훌쩍 넘긴다.

‘리틀 칸’ 김영광 골키퍼의 예비신부 김은지씨, 오범석 선수의 부인 민수지씨도 깜찍한 외모로 인기 스타 못지않은 인기를 누리고 있다. 민씨는 최근 ‘당신에게 부담으로 다가와 제 실력을 발휘 못 하는 것은 아닌지 항상 걱정이 돼요. 축구 이외의 것은 다 나에게 맡기고, 당신은 항상 그래 왔던 것처럼 자신감 넘치고 욕심 많은 즐거운 악바리의 모습으로 월드컵에만 전념해 줘요’ 라는 영상 편지를 보내기도 했다.

허정무 감독의 부인 최미나씨는 남편이 좋은 성적을 내고 돌아올 것을 자축하기 위한 깜짝 이벤트를 준비하고 있다. 7월달이 결혼 30주년이기 때문에 휴식을 겸한 단둘만의 여행을 떠날 계획이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